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26일(일)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기획팀장 • 담당자 	서미숙 ☎440-4821 윤이경 ☎440-4823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해양교육문화 대표도시로 도약 본격 시동

-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5개년 지역계획 수립,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 마련 -
- 기초조사·실행체계 구축 하고 사업 발굴·실행 통해 2025년 완성 목표 -

인천시가 수도권 대표 해양 도시로서 미래 가치를 향상시킬 초석을 다졌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해양 교육문화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인천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년)’을 토대로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해 3대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시는 올해와 내년까지는 준비단계로 기초조사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2024년까지는 사업 발굴 및 실행을 통해 오는 2025년 에

는 수도권 해양교육문화 대표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께하는 바다,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인천시가 추진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3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1. 해양교육문화 콘텐츠강화〉

해양교육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 해양교육의 콘텐츠 발굴·지원하고, 세대별·계층별 수요조사를 통한 사회해양교육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문화 자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우수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복원 등을 통한 가치제고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략2.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교육문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관련 사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전문 기업(단체) 등은 부족한 실정으로 해양교육문화 강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양역사·인물·경관·특산품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축제와 지역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3. 해양교육문화 제도 기반 정비〉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 중이며, 해양교육문화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2024년까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극지재현실용화센터가 개관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해 해양교육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기존에 추진되던 해양교육문화 사업과 연계한 해양교육문화 사업을 확대·발굴하고 지속적인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해양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비전 및 목표

참고1

비전 및 목표

비 전

함께 하는 바다, 행복한 시민

목 표

- ◆ 해양교육문화 전문인력 양성 ('21.) 51명 → ('25.) 100명
- ◆ 해양교육문화 시설의 건립 지원 ('21.) -개소 → ('25.) 3개소
- ◆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 설치 ('21.) 미설치 → ('25.) 설치완료

3대 추진 전략

①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②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③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

7개 추진 과제

- 해양교육의 확대
-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촉진

- 지역형 해양교육문화산업 지원 강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문화 활성화

-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 해양교육문화 실행체계 구축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